필라 한인유권자연대
KOREAN AMERICANS FOR CIVIC PARTICIPATION (KACP)

2019 대필라델피아 지역 한인 커뮤니티 설문조사

KACP, NAKASEC

2019

필라 한인유권자연대 소개

필라 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s for Civic Participation, KACP)는 교육, 리더쉽 개발,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 필라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강화하고자 모인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연대단체는 필라 한국여성봉사회(Korean Women's Center, 1985년 설립), 대필라델피아 한인회(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Philadelphia, 1970년 설립), 한인 커뮤니티센터(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1993년 설립)로, 2019년 지방선거부터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율과 정치력 신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 단체의 인력, 재정,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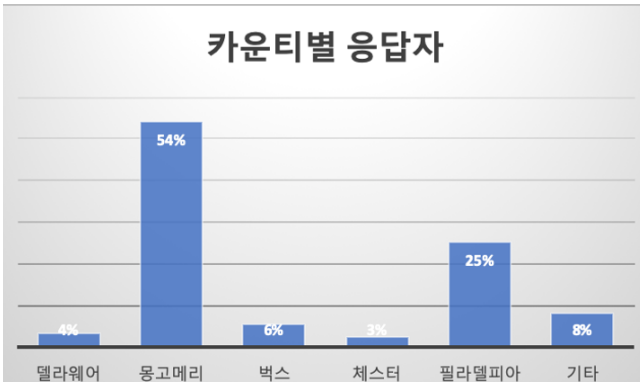
필라 한인유권자연대는 대필라델피아 지역 한인단체 중 동포들의 시민참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 중 상당수는 최근 이민자이거나 영어구사에 제한이 있어, 지역과 주, 연방 선거 참여는 물론 전미 인구조사와 같은 정부 조사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 단체의 활동가들은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로 모두 한인 이민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일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9년 필라 한인유권자연대 결성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 예로 2016년 선거직후, 세 단체들은 이민자 동포들로부터 우려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이민 위협에 대처하고자 2017년 초 공동으로 이민자 기본권리 워크샵 등을 주최했습니다. 한인유권자연대 활동을 통해,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필라델피아 지역 및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2010년 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는 약 41,000명의 한인들이 거주합니다. 그 중 대다수(30,879명)가 대필라델피아 지역, 즉 필라델피아, 몽고메리, 델라웨어, 벅스 및 체스터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필라델피아 지역 한인 중 약 2/3는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에서 태어났으며,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 한인 중 69퍼센트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한인은 비교적 최근에 미국으로 온 이민자 그룹에 속하지만, 필라델피아 시에는 데이빗 오와 헬렌 김, 두 명의 한인 시의원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법무부 수석법무관을 지냈던 펄 김은 최근 연방 5지구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공직선거 출마에 보인 관심은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들이 얼마나 시민참여에 투자하고 있는지 증명합니다. 더불어 펜실베이니아 내 아시안계 미국인의 시민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투표율은 35% 증가했는데, 이는 라티노를 제외한 다른 인종의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유권자등록을 한 아시아계 유권자의 수는 23% 증가했으며, 이는 평균(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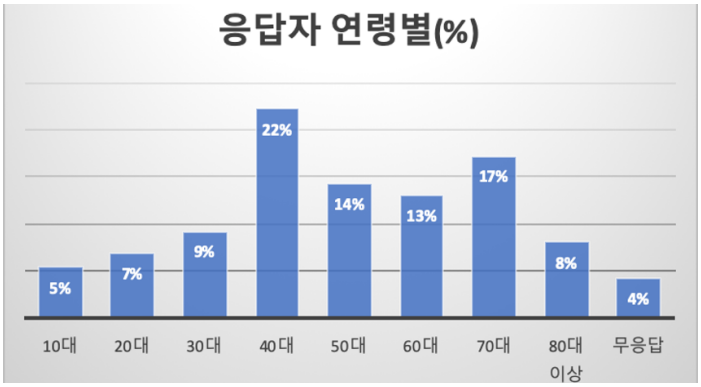
지난 4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라 한인유권자연대는 2019년과 2020년 선거, 그리고 2020년 전미 인구조사(센서스)에 한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언어 및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소셜 서비스(예를 들어 교육자료와 안내서 배포, 워크샵 진행, 투표장 및 인구조사 참여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온라인 지원 등)를 제공할 계획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번 여름 필라 한인유권자연대가 실시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한인 사회를 이해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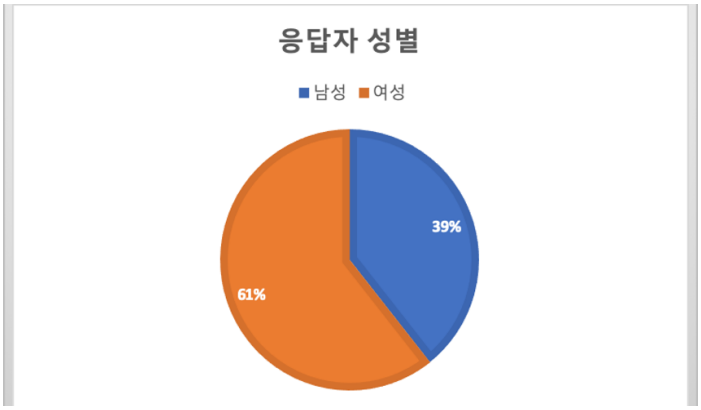
2019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필라 한인유권자연대는 몽고메리 카운티 내 한인 마켓, 한인 소셜서비스 단체, 그리고 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에서 한인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다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는 영어와 한국어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소셜 서비스 유형과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총 338명의 한인이 참여했습니다.

응답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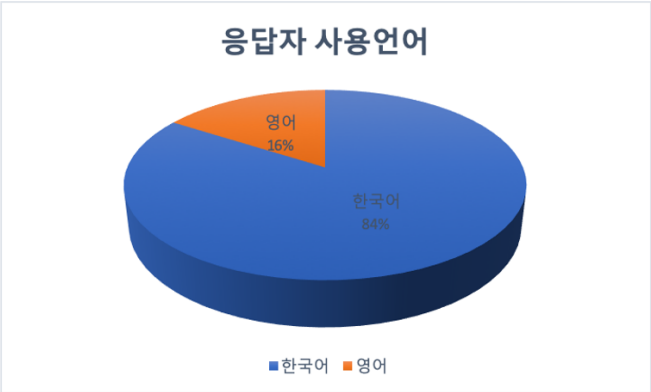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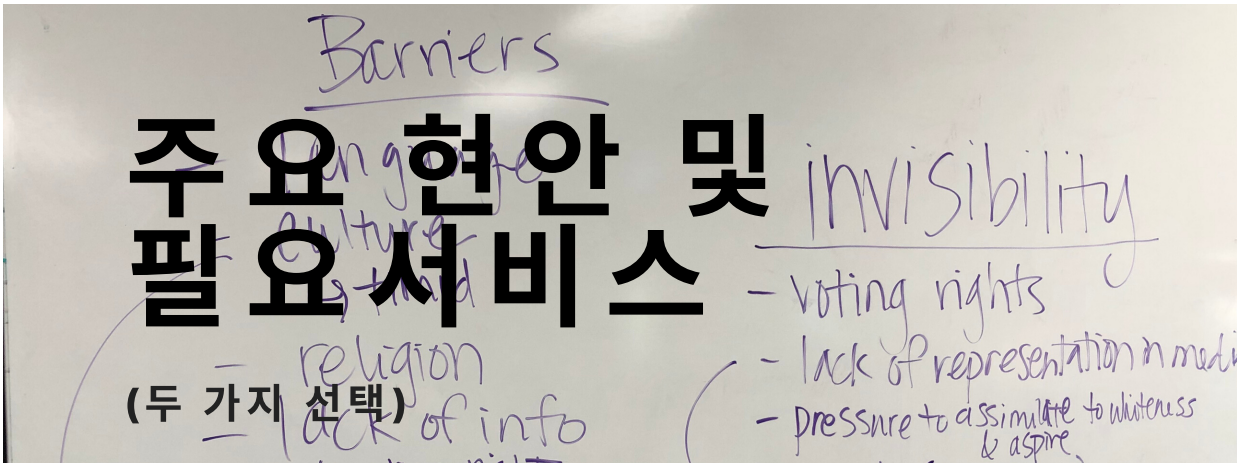
다섯 카운티를 제외하면, 응답자 대부분이 리하이, 노스햄튼을 포함한 근처 카운티 거주자였고, 캠든, 머서, 먼로 등 뉴저지 카운티 거주자도 있었습니다. 3명의 응답자는 각각 델라웨어 주, 메릴랜드 주, 뉴욕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 카운티별 응답자 비율은 앞 페이지 그래프를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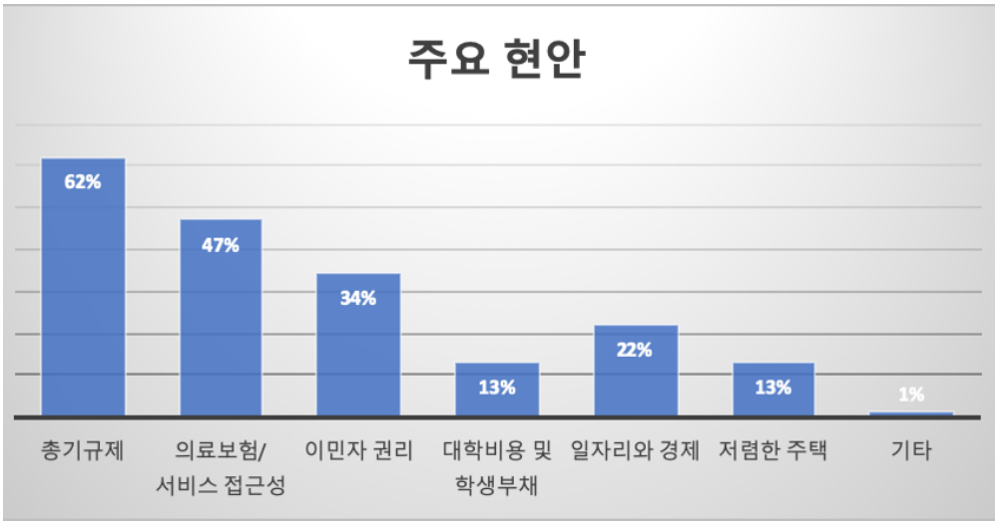
** 응답자 성별은 "남성" 과 "여성" 두 선택지만 제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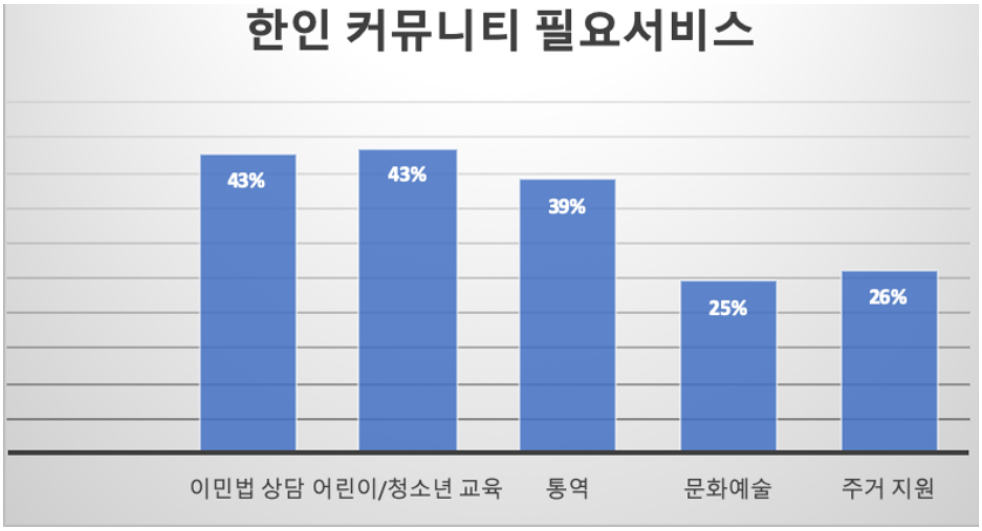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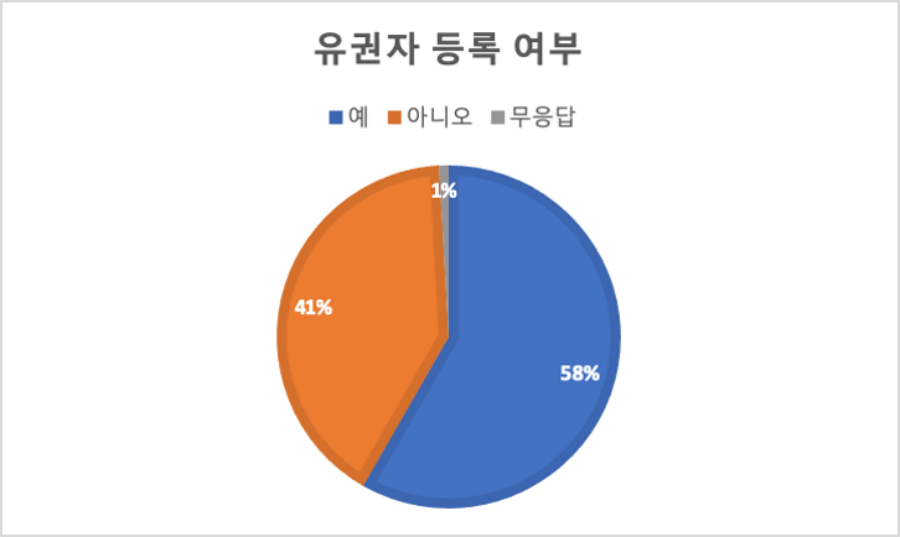
주요 현안 및 필요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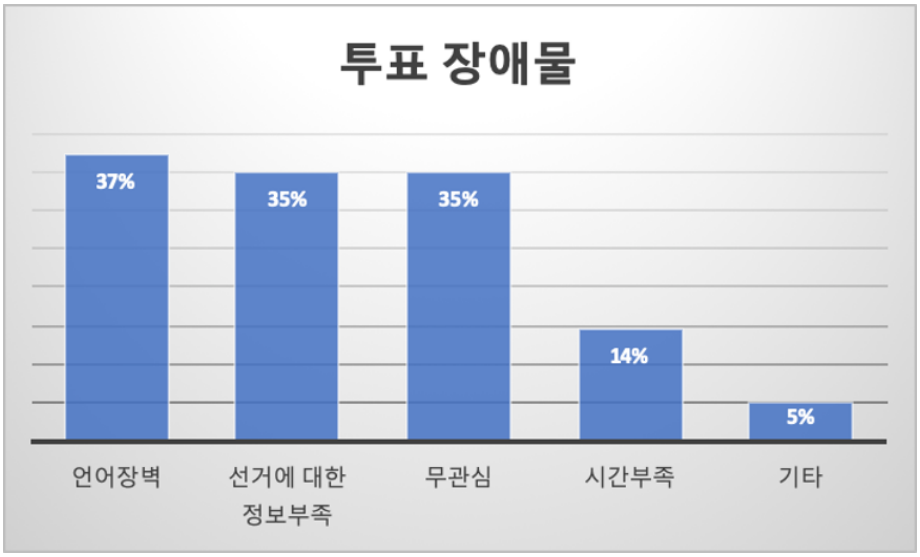
(두 가지 선택)





투표의 장애물





"기타" 응답에는 투표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로 많았고, 그 이외에도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등도 거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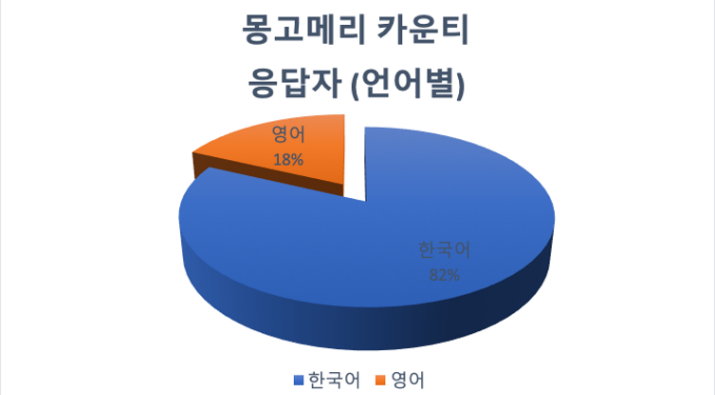
결론

주요 현안과 서비스
한인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총기규제(62%), 의료보험 및 서비스 접근성 (47%), 그리고 이민자 권리(34%)였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여러 분야에 골고루 나뉘어 분포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39-43%) 이민법 상담 서비스, 어린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통역을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고, 그 다음이 주거 지원 서비스(26%),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25%)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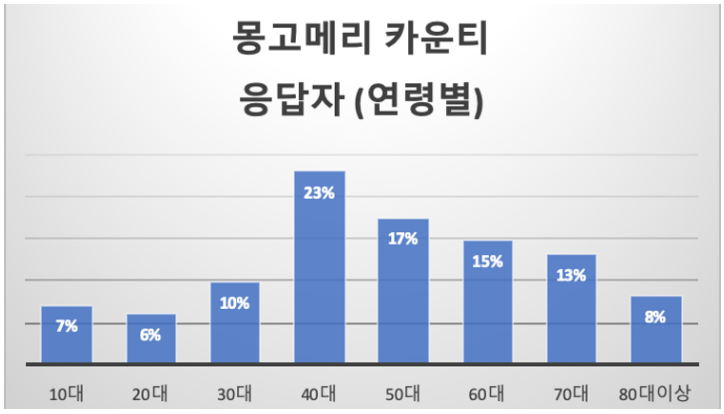
유권자 참여
응답자 중 59%가 등록된 유권자였고, 41%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표참여의 어려움은 언어 장벽, 선거에 대한 정보 부족, 무관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매우 소수의 응답자(5%)가 “기타"를 택하고 서면으로 응답하셨는데, 주로 투표할 자격이 안 된다는(미국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포함) 대답이었습니다 .

응답자 구성
대다수의 응답자 (54%)들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필라델피아 카운티(25%) 였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40대에서 70대사이로, 과반수(61%)가 여성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의 응답자들이(84%) 한국어/영어로 된 설문조사서 중 한국어를 택했습니다.

응답자 분포 -몽고메리 카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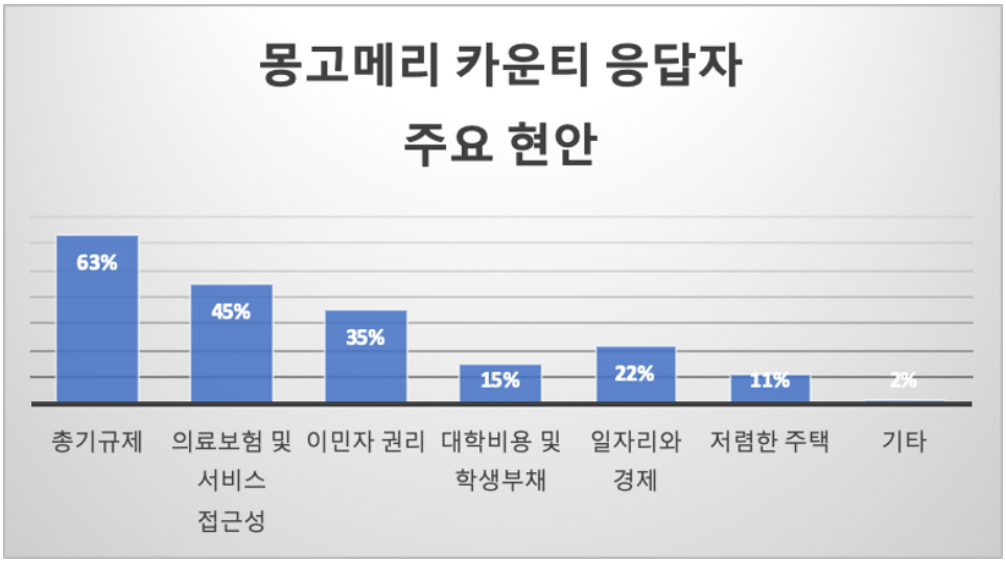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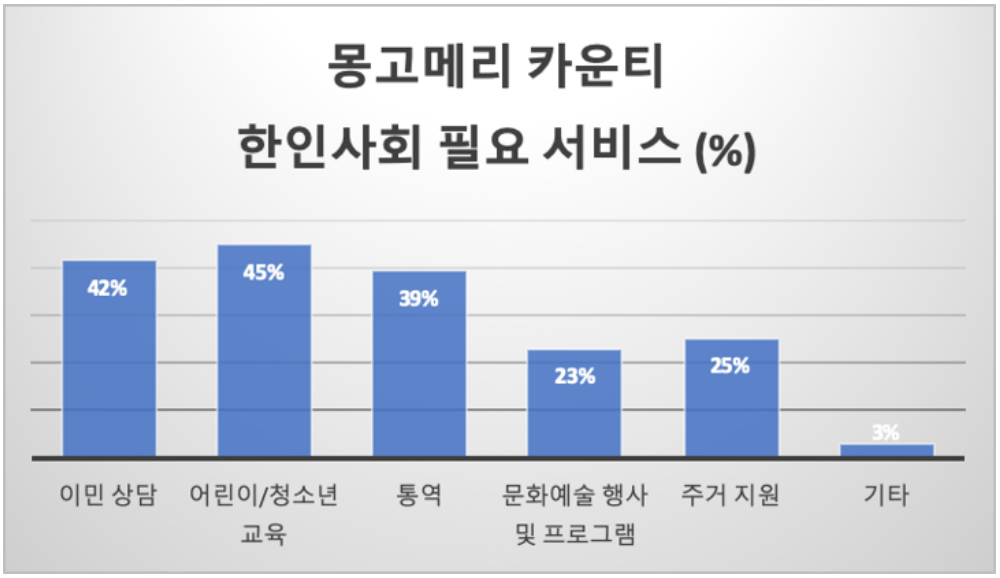
다음은 필라지역 5개 카운티 중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응답자에 한정된 조사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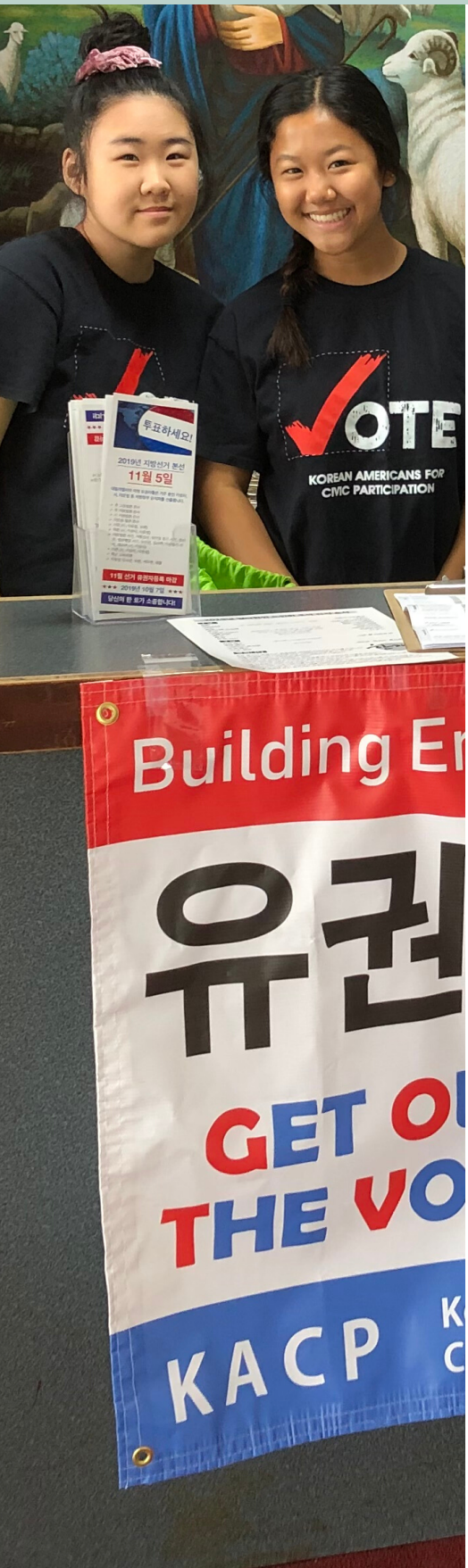
주요 현안과 필요 서비스 -몽고메리 카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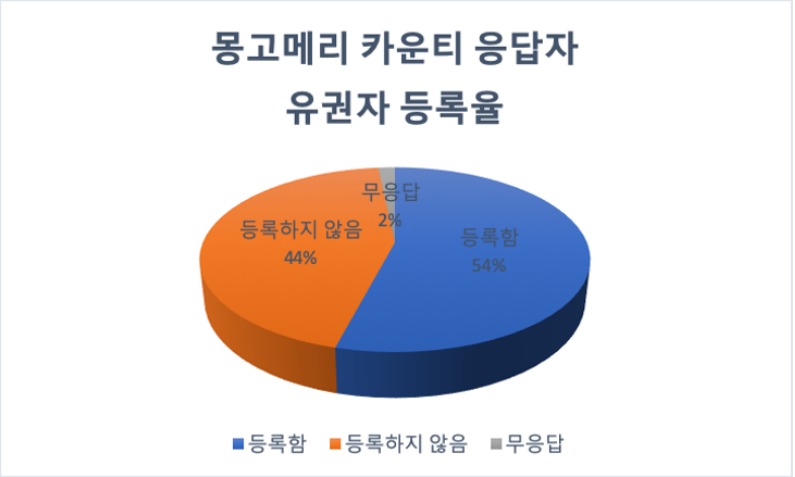
(두 가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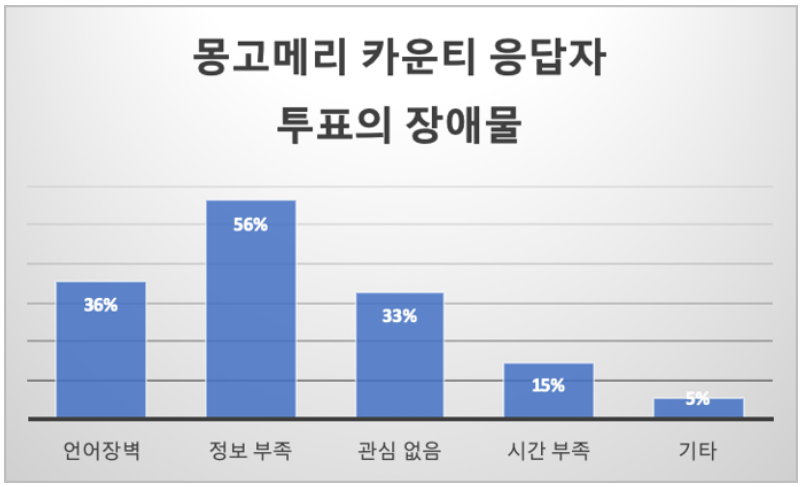




투표참여-몽고메리카운티







"기타" 응답은 주로 투표할 자격이 안됨, 미국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 등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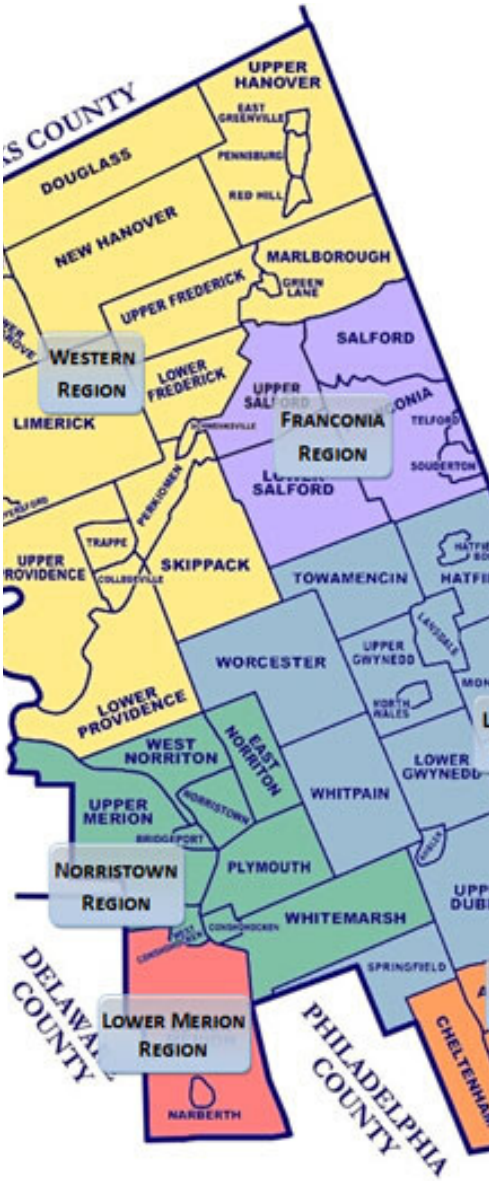
결론

총 응답자중 과반수(54%)이상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 지역 데이터를 따로 분석했습니다.

현안과 서비스
한인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총기규제(63%), 의료서비스 접근성(45%), 그 다음이 이민자 권리(35%)였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커뮤니티가 필요한 서비스는 여러 분야에 골고루 나뉘어 분포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39-45%) 이민법 상담, 어린이/청소년 교육, 통역을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고, 그 다음이 주거지원(25%),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23%) 순이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응답자중 54%가 등록된 유권자였고, 44%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6%의 응답자가 선거에 대한 정보 부족을 투표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으로 언어장벽(36%)과 무관심(33%)을 선택했습니다. 극소수의 응답자(5%)가 “기타"를 택하고 서면으로 응답하셨는데, 주로 투표할 자격이 안 된다는(미국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을 포함) 대답이었습니다 .

응답자 분포
몽고메리 카운티 응답자들은 연령과 투표의 장애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 평균 응답자와 달랐습니다. 아마도 응답자 중 두번째로 큰 집단이 필라델피아 카운티에 거주하는 연장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 한인유권자연대

질문이 있으신가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필라 한인유권자연대에 연락하세요.

WWW.KACP-PHILLY.ORG
MEL@KACP-PHILLY.ORG
EDWARD@KACP-PHILLY.ORG